

공대위 오는 28일 대토론회 제안

총학생회 총장실 집기 끌어내... 상징적 응징 전체교수회 참여촉구, 각계 움직임 활발

지난 8월 23일 李智冠총장과 黃鍾經이사장 구속사건 이후 28 일째를 맞고 있는 현재, 각 단계에선 수습대책 마련에 부진하고 있다.

「동국의 자주적 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4시 노조 사무실에서 6차례의 회를 갖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관해 논의, 오는 28일 교수·학생·학교당국·직원 등 학내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론회를 통한 대토론회 공감대형성을 이루어 나가기로 합의한 뒤 다음 주중으로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제 7차회의를 오는 28일 오후 4시 노조사무실에서 갖고 교수회의 추동문제, 총회수습대책위에 관한 의견 등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문교부감사및검찰조사내역 공개와 관련 「부정비리 진상규명 결의대회」가 지난 21일 오후 1시 학생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총학 주최로 열렸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학생들은 학교측의 진상공개 외의결정과 사건의 종속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반학자부세력에 대항하여 부정비리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 4) 등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조직적 부정부리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정비리를 위시한 모든 학내 부정비리에 대해 학생들이 학내부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대토론회가 끝난 오후 2시경 학생들은 본관앞에서 부정비리 진상규명을 위해 제 1차 집회와 연대를 요구, 宋在雲 학생회장과 尹賢禧총무처장과 면담을 가졌다.

尹총무처장은 이날 담판을 통해 「입시업무와 관련, 총장에게 상정사항 보고를 했다고 일간지에 보도된 것은 오보이다」라고 말한 뒤 「입시업무와 총무처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宋학생회장도 「감사결과 이상의 지적사항은 전혀 없으며, 학교에서도 신문지상 발표 이상은 아느냐」고 말했다.

총장선출제 설문 실시 후보자격·참가주체 설정등

전체교수회(의장=金鶴壽)는 총장후보 선출제도 마련을 위한 설문지를 지난 25일 작성, 서울·경주캠퍼스 교수들에게 배포했다.

지난 21일, 23일 이틀간 교수회 사무실에서 서울·경주 대의원회를 개최, 기초연구단 작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이번 설문지는 △총장후보추천문제 △총장 후보자 자

격조건 △ 4 자선석회의(교수, 학생, 직원, 대학원생)를 통한 총장후보 선출문제 △ 학생 및 직원의 총장선출에 대한 참가방식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교수회는 이 설문지를 오는 29일까지 접수받아, 교수회의 총장선출방식을 정밀하게 된다.

이날 면담에서 총학측은 8개의혹사항중 △검찰수사발표와 문교부감사결과와 부정비리 학자수가 46명이고 45명이라고 문교부 △총학생이尹賢禧총무처장으로부터 입학정책 상향조작 및 기부금 액수를 보고 받았다고 구속적부심 진술을 시 밝혔다는 결과보고를 파악할때 구속자외에 사건관련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점 △이법사태의 원인이 재판의 구조적 문제 때문인데 학교측이 부추려서 일어난 것 처럼 여론에 의존한 점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李총장은 이와관련, 담판을 통해 「검찰수사발표와 문교부감사결과와 부정비리 학자수가 다 틀렸을 감사결과상의 확인이며, 현 구속자외에 더 이상의 관련자는 없으며, 이번 부정비리해는 학교의 재정이 궁핍해서 일어났다」고 시정일관했다.

또한 총학측은 지난 7일 정기학생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중 △총장의 5대일간지 대국민성명서 발표 △부정비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비리사건 경위와 진도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李총장은 「현재 내가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대국민성명서 발표는 곤란하며, 언론에 보도된 외에 더 이상의 사건경위는 없다」고 답변했다.

「반학자부세분쇄를 위한 결사투쟁 결의대회」가 지난 26일 오후 1시 학생 1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총학 주최로 열렸다.

한편, 이날 총학생회장 김

성규(사학 4) 등은 사발음했으며, 대회후 학생들은 총장실을 점거하고 총장실 집기를 불상주위에 들어냈다.

서울캠퍼스 직원노조(위원장=이건배)는 본교의 부정비리사태와 공동대책위에 참여하는 노조의 입장과 관련, 지난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6일 오전 총문과 후문에서 상무집행위원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성명서를 배포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첫째 현사태의 해결은 증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진상규명, 둘째 문교부감사결과와 공개와 문교부의 부당한 징계지시에 항의와 거부, 셋째 학교의 공적인 최소한 책임소재확인을 위해 당시 실직자들의 보직사퇴요구, 넷째 동국인의 총의에 의한 총장선출제도 마련」 등을 천명했다.

「모교사태정결의대회」가 지난 23일 오후 5시 다관(지하 1층)에서 열렸다.

김태준(우역88층) 사무차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양홍관(철학88층) 등은 「공대위 1차토론회를 오후 5시 전체 교과위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자부사무원에서 가졌다.

하반기 투쟁방향, 특강실시선학과교수임용문제 등을 안건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스터움·무능 부패세력 척결을 위한 투쟁 결의 △오는 4일부터 「북한의 사상」 등 총 8개 특강실시 △문교부대선학과 한대시 강사의 여론조사를 무시한 임용과 관련, 선학과교과위원장 김봉만(선학 4) 등의 징계를 결의했다.

이날 교과위가 운영하는 「특강실시」는 오는 4일의 「한국교육현실의 비판과 전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중앙당당 동국관(L1 01)에서 1회씩 실시된다.

「특강」은 정규교과과정에서 담겨져 못하는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학습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21학점 이외의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강좌는 「북한의 사상」, 「인류와 핵」 등 8개이며 강사는 아직 미정이다.

「특강」의 수강신청서 배우



「끝내 이기고야 말...」 「전교조 탄압저지와 노동조합·교육조합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전교조사수·참교육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민주총문회는 「이런 사태의 해결책으로서 연대강화노력」 「교수외공대위참가촉구」 「동국대수습대책위원회의 협력」 등 결의했다.

한편, 민주총문회는 이날 「교수외공대위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 교수들에게는 「공대위참가」를, 학생들에게는 「학원자주화투쟁으로 민주총문회 재단혁신에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다.

조계종중앙총회에서는 지난 19일 「9인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소위는△위원장 송철주△간사 김자우, 김정류△위원에 유원일, 박종하, 최학운, 홍시연, 김경우, 방지하△사무장 송철주 등이다.

과외교수들이 반대하고있어 오는 4일부터 「특강학점 인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13대 주간예
朴榮吉 교수

본사재 13대 주간예 박榮吉(법학) 교수 <사진> 가 지난 22일

자사로 부임했다.

박신입주간은 64년 본교법학과를 졸업했으며 82년 법학과 전임으로 부임, 86년 계산고시학사 사장을 역임했다.

한편 전임 林英正(역사교육) 주간은 일본 경도불교대학 교원교수부임을 위해 지난 8월 31일자로 사임했다.

야구부 추계리그

본교 야구부가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리는 「전국대학 야구추계리그」에 참가, 오는 4일 오전 9시 서울대와의 첫 경기를 갖는다.

「북한의사상」등 특강 실시 교과위 학점 인정 위한 서명운동 벌이기로

서울캠퍼스 학자부위원회 산하 중앙교과위(위원장=오세민·법학 4)는 89학년도 제 2학기 투쟁방향 설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지난 22일 오후 5시 전체 교과위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자부사무원에서 가졌다.

하반기 투쟁방향, 특강실시선학과교수임용문제 등을 안건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스터움·무능 부패세력 척결을 위한 투쟁 결의 △오는 4일부터 「북한의 사상」 등 총 8개 특강실시 △문교부대선학과 한대시 강사의 여론조사를 무시한 임용과 관련, 선학과교과위원장 김봉만(선학 4) 등의 징계를 결의했다.

이날 교과위가 운영하는 「특강실시」는 오는 4일의 「한국교육현실의 비판과 전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중앙당당 동국관(L1 01)에서 1회씩 실시된다.

「특강」은 정규교과과정에서 담겨져 못하는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학습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21학점 이외의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강좌는 「북한의 사상」, 「인류와 핵」 등 8개이며 강사는 아직 미정이다.

「특강」의 수강신청서 배우

경주 학생총회 개최 민주총장·부총장선출안등 결의

경주캠퍼스 정기학생총회가 오는 28일 오후 1시 녹야원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는 민주총장 및 부총장선거안 결의, 전교조 탄압분쇄를 위한 공대위 진척상황 및 투쟁방향설정, 학자부진도등을 안건으로 하여 열리게된다.

노천극장 건립안
연내준공 어려워

경주캠퍼스건설·조정자문위원회(위원장=姜昌淳사무처

보은수

한편 寒山에 들어가 있어 어느덧 삼십년 흘러 지났다.

이제 돌아와 친구를 찾아오니 거의 반이나 황천의 손이 됐다.

차츰 돌아들어 남은 쉼 볼 갈머니 길이 흘러들러 가는 강을 갈구나.

세상 이쁜 그림자 마루 없으니 두 줄기 눈물 절로 달아 흐르네.

寒山寺

寒山詩(金蓮續역)의 한구절이다. 속세의 많은사인들이 화담할 운을 찾지못했던 파적의 시 3백을 남겼던寒山. 세상사람들이 그의 파적을 비난하면 그는 도리어 그들의 시짓는 것을가리켜 「장님이 해를 읊는 것과 같다」고 웃었다. 그리고 고고히 산에앉아 시내에 비친 외로운 달을 바라보면서 「시가운데 離이있

었다. 이 寒山이 끝말에「잠시 머물렀다는 절이 소주(蘇州) 교외에 있었다. 그의 이름을 따서 寒山寺. 규모도 작지 않고 사우(寺宇)도 정갈하였다.

그리고 큰 범당 뒷면에는 우리들에게 너무도알려진, 절가슴을 드러내고 전진하게 웃는 한산과 습득의 모습이 석각에 있었다. 부처도 있고, 종각도 있고 갖것들은 다 갖었는데 이상하게도 佛像은 없었다. 오직 하얀 납두한 장삼을 걸친 스님이 머로 「佛」자를 써주고 뒷날보시를 받는것이 전부였다.

남은 쉼갈머니, 가는 강을 갈거나, 산생활 90년을 보내고 속세의 무상함을 읊을 것인가. 한산사는 오늘 중 국분교를 보면 무엇이랄을 것인가. 한산사는 오늘 중 국분교를 잘 대변해주었다.

宋在雲

수습기자 추가모집

大學言論의 선도의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本社에서는 어둠과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意氣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서울·경주캠퍼스 0명
②응시자격: 1학년 男女 在學生
③모집분야: 일반 및 사기기자
④제출서류: 本誌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지 1매 (지침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함)

⑤원서접수: 서울 9월 28일 오후 4시까지
경주 9월 29일 오후 4시까지
⑥시험일자: 서울 9월 28일 오후 5시
경주 9월 29일 오후 5시
⑦시험과목: 1차 필기-국어·상식·직문
2차 면접-1차 필기결과에 한함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 함림관 J201(서울캠퍼스)
원문관 A301(경주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989년 9월 6일

동대신문사

우리의어둠 밝히는 학문의 전당

동국대학교는 지금, 거듭태어나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동국 대학교는 개교83년의 오랜 전통과 역사가 증명하듯 한국의 근세사, 우리의 지성사를 양산해 이끌어온 수많은 선구자들을 배출하며 학문의 선진화, 문화의 선진화를 추구해온 전통의 명문사학이다. 우리 전래의 민족 종교인 불교정신을 기반으로 지혜의 체득·자비의 실천·분위의 정진 등 대학인이 갖춰야 할 3가지 교육목표를 추구해온 동국대학교는 이제 그 빛나는 전통을 한층 승화시켜 '동국의 학풍'을 세계로 넓히는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동국인 들은 그들의 선배들이 이룩해온 학문의 업적, 독특한 학풍,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 한층 고양된 새로운 동국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이미 제1인종인 3백여명의 석학교수들과 함께 연구와 교수의 길을 계속늘어나고 있고, 매년 수십명의 신입교수들을 초빙하는 한편,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로 한국의 학계의 미래 주역들을 육성하고 있다.

2만 인제들은 우리나라 지성의 산실이 되어온 유서깊은 서울캠퍼스와 1979년에 신설된 경주캠퍼스에서 각각의 전공분야를 통해 학문의 깊이를 더해가며 이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향해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교육의 깊이와 폭을 넓히고 기수화하는 학문의 국제화추세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학술 및 학생·교수의 국제교류에 앞장서며 UCLA 등 미국·독일·일본의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학문의 세계화를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 267-8311~45
●경주캠퍼스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 (0561) 2-0131~6

불교종립 대학으로서 본교의 역사와 과제

1. 들어가는 말

민족 통국대학교는 조선(한국) 불교 34개 종단 가운데에서 가장 큰 기층인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된 종합대학으로서 불교계에서는 하나뿐인 종합대학이다. 서울과 경주에 총 17개 단과대학 85개 학과,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5개와 교수 4백여명, 학부생 1만 7천여명, 대학원원생 9백여명을 거느린 동대는 이제 1906년 5월 8일 명진학교로부터 비롯된 이래 83년의 긴 세월동안 아홉번이나 학교이름이 바뀌면서 조선 민족과 민중의 고락을 함께 나누어 왔다.

무엇이 이 땅에서 민족의 대학, 민중의 대학이라 할 때 그 때를 세운 이가 조선사람이며 세대의 자원이 조선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모은 돈이며 조선사람들이 오고간 살아오면서 스스로의 삶의 방법과 삶의 태도에 의해 가꾸어져 온 정신과 문화에 바탕을 두었으면서, 조선 민족과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가장 가까이 이바지해 왔을 때 흔히

학원자주

학원자주 동체를 지향하며

희를 열고 원종 총부원을 설립하였다. 다케다라는 이 원종을 중심으로 조선불교를 통일불교화시키기 위하여 친일분자 이용구의 소개로 원종 교본이 되었다.

원종은 일본의 내륙지방의 정치와 논리이며 아시아주의의 종교적 표현으로서 조선인이었던 다케다에 의해 설립된 것이었다. 다케다는 친일승려 이회광을 조종하여 일본 조종종과 조선 원종이 서로 연합하도록 음모를 꾸미었다. 이에 반발한 안용문, 박남영, 진진 등은 1911년 1월 15일 승려사대 영호남 승려들을 모아놓고 총회를 열어 원종을 부정하고 일제종을 세웠다. 일본은 조선불교의 통일기관으로 원종이라는 어용총단을 세워놓고 이를 조종하여 일본불교의 조종종과 연합시키려 하였으며 조선불교를 종속시키고 조선민중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였으나 1911년 6월 조선총독부가 사찰령과 7월 2일 시행규칙을 발표함으로써 불거춤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반일종의 기치를 내건 일제종은 조선불교청년운동으로

◇글심는 차례

1. 한국대학의 모순구조
2. 종립대학으로서 東大의 문제
3. 민족대학의 위상과 과제
4. 건학이념의 올바른 구현
5. 학문공동체를 지향하며

의 역할을 올바르게 자리매김시키지 못하고 개인의 영달과 안일한 태도로 조종종과 친일불교화시키기 위하여 친일분자 이용구의 소개로 원종 교본이 되었다.

원종은 일본의 내륙지방의 정치와 논리이며 아시아주의의 종교적 표현으로서 조선인이었던 다케다에 의해 설립된 것이었다. 다케다는 친일승려 이회광을 조종하여 일본 조종종과 조선 원종이 서로 연합하도록 음모를 꾸미었다. 이에 반발한 안용문, 박남영, 진진 등은 1911년 1월 15일 승려사대 영호남 승려들을 모아놓고 총회를 열어 원종을 부정하고 일제종을 세웠다. 일본은 조선불교의 통일기관으로 원종이라는 어용총단을 세워놓고 이를 조종하여 일본불교의 조종종과 연합시키려 하였으며 조선불교를 종속시키고 조선민중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였으나 1911년 6월 조선총독부가 사찰령과 7월 2일 시행규칙을 발표함으로써 불거춤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반일종의 기치를 내건 일제종은 조선불교청년운동으로

를 관리, 사용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권력세력이 집중한 대부분의 적산사찰도 발매와 착복 등 부정부패와 부실경영으로 많은 재산들이 소실되고 말았다. 결국 미군정은 대한 불교관계의 적산을 불교계 중앙총무원에 넘겨주고 대부분을 그들의 관리와 보호아래에 두었지 아니던 그들의 목적수행에 의해 전권을 의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중앙불교진흥원은 1940년 해학전문학교로 개칭하고 불교와 흥학을 신념하면서 사관학교의 교육기관이던 성격에서 벗어나 사회적, 일반적 성격으로 폭을 넓히면서 당시의 보성전문, 연희전문, 이화여자대학교와 더불어 조선의 4대 전문학교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인 교장(다카하시)이 취임하자 조선인 교수와 강

은갖 차부를 다 드러내게 함으로써 무수한 불교신자를 개신교와 천주교로 개종하게 하였다. 이후 불교계는 통합종단인 대한 불교조계종을 창립하고 안정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대권을 잡은 박정희정권은 1962년 5월 21일 불교재산관리법을 공포하여 불교계 재산을 조종하게 하였다. 대법원에서의 비구족의 승소판결은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재산을 둘러싼 새로운 분규를 불러 일으켰다. 이 결과 통합종단은 결별되고 1969년 10월 23일 대치종은 한국불교교단총중을 창립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이념의 분열이 계속되고 불교분규의 운상이 되고 있다.

한편 통국대학교는 불교계와 불교를 달리하여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한 채 50, 60년대를 보내고 있다. 70년대 초반 사립대가 사용하는 학원권의 소유권문제도 학교당국과 재단의 갈등이 계속되자 사관학교장(7대)이 취임 반년만에 물러났다.

그러자 문교부는 불교와는 전연 무관한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관공시사를 파견하였으며 이때부터 동대는 본격적으로 대외정권에 의해 학원침탈을 받아 오기 시작했다. 이어서 또 불교와 무

대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두환 대우 군부파소대리세력들이 저지른 광주민중 학살을 회색시각기 위한 도하나 고도의 정치적 사기극에서 모색된 불교단립이었던 것이다.

신식민주의에서 민족주의가 철저하게 탄압받았던 민족의 정신적 뿌리이자 민족종교인 불교와 그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세운 동대는 그들에게 눈앞의 가시같은 존재였기에 캠퍼스 안팎에서 중부서 잡세들의 감시의 눈초리도 사뭇 매서워졌다.

모처럼 불교계가 화합의 모음을 보이면서 자취하의 목소리를 높여가자 예측불교로서의 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려고 했던 정권은 무수한 탄압과 소외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이제는 그 악업을 참회한다고 떠벌이면서 백담사에서 다시 정권의 복귀를 위해 칼을 갈고 있다.

거기다가 노태우·군사독재정권 역시 불교재산관리법의 병행인 전종사찰보존법으로 불교를 다시 종속시키면서 급기야는 민족대학교인 동대의 총장과 이사장인 스님들을 부정임명이라는 매우 불공평적인 명분으로 구속식민으로서 학원침탈과 불교침탈을 저지르고 말았다. 노태우정권연시 10·27법안의 주동자이며 불교분규의 조장자로서 끊임없이 불교침탈과 대립침탈을 감행해 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5. 종립대학내의 불교대학의 위상

불교·철학과로 편성된 불교대학은 이후 인도철학과(1963) 불교미술과(1970) 승가학과(1972) 등을 신설하여 발전하면서 불교인재양성과 민족교육에 이바지한다는 명칭학교 이래의 건학이념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오늘(1989)의 불교대학(불교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모습은 동대의 건학이념에 대해 얼마만큼 성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다. 3백80여명의 불교대학생들이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입학한 사람은 얼마이며, 졸업이후에도 이 사회에서 불교인으로 남아 불교를 포교하고자 하고 그 마음가짐을 다지는 사람은 얼마인가.

통국대학교가 이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질수 있는것은 불교의 목소리를 통해서 가능할것이며 그러할때 비로소 통국대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단과에서 능력이 부족한 불교대학을 늘 배려한 해줄것이 아니라 불교대 스스로가 자각할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각을 주는것이 바람직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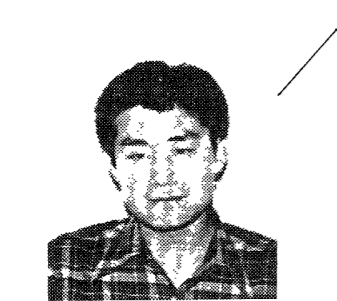
불교대는 나름대로 이 동대의 주춧돌과 기둥이던 단과대학으로서, 그리고 학교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서 본래의 자기 사명과 임무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있어야 할 때만 이젠은 온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학이 아니라 내용과 실천력이 아우러져서 동대 17개 단과대학 가운데서 가장 모범이 될 때만이 학교발전의 기틀을 다질수 있는 것을 불교대학은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불교대학이 동대 건학이념의 자리매김에 있어 온전한 가꾸어야 할 사명이다.

6. 끝맺는 말

동대발전과 불교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마찬가지로 불교대학의 발전은 동대의 발전을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것이다. 불교가 외세와 군부독재정권으로부터 자주화되는것이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듯이 동대도 권력침탈로부터 학원을 지키고 학원의 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들이 주체로 우뚝서서 학원자주화투쟁이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것은 곧 1989년 11월이었던 민주적 총장선거로 기결될것이다. 동대<학자선언문>에 「학원자주투쟁은 식민지 지배체제의 모든 사상적, 인적, 물질적 구조를 해체하여서 식민지어나는 투쟁으로 학원사상의 정취 부흥과 학생의 학사행정을 참여 보장해야 할것이다. 학원내의 모든 계약들을 총칭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개조하고 개혁운동을 성과로써 수행하기위해 동대를 구해내 나가는데」라고 한것과 9.7해인사 승려대회 3주년을 맞이하여 불교계에서 추창한<불교자주화선언문>에 「불교의 자주화는 넓게는 인간의 자주성과 인간의 창조성을 유린하는 온갖 속박으로부터의 해탈을 의미하며 좁게는 불교를 관제속화시키는 의제와 대립정권으로부터의 해탈을 의미하는 것이니」라고 한것이 모두 민주운동과 투쟁운동이 함께하여 내리는 현대의 우리사회에서 누룩처럼 우뚝서서 자주화의 누리로서 이제 불교가 이 민족의 고향을 함께 나누는 민족종교가 되고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한 동대 학자부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때 종립대학으로서의 동대의 올바른 위상은 저절로 세워질것이다.

종립이라는 울타리를 과감히 벗어 나 아니라 민족과 민중의 대항로 법망을 뛰어넘고자 하며, 한 승려 183명을 부정임명의 죄목으로 연행하고 고문하였다. 그들과 승려의 승려들이 사관학교에서 불교를 연구하고 자존을 탐방하는데 떨어지고 말았다. 이것은 80년초의 민주화의 불을 잠재우고

불교자주와 학원자주는 "수레의 두바퀴"



고영섭 <불교대 불교학과>

일컫는 이름이다. 그러한 때 동국대학교는 조선에서 이 이름에 가장 걸맞은 대학일 것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 아래에서 이 겨레의 온갖 영예와 오욕을 함께 해오면서 폐교와 개교를 해왔던 민족의 대학, 민족의 대학, 동대에 있어 이 민족에게 해방이전에 보여준 모습과 해방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서로 견주어 볼때 동대는 민족, 민중대학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고 작부유기를 해온 절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조침사의 파멸적 과역대변들의 고도의 지배를 치주조 속에서 이해를 해오지 못한, 오늘의 동대 현실에 있어서 무엇이든 그것의 구조적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 구조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서야한다는 동대 전기적의 뼈대를 자각하고 실천속에서만 이 작부유기의 현실을 극복해 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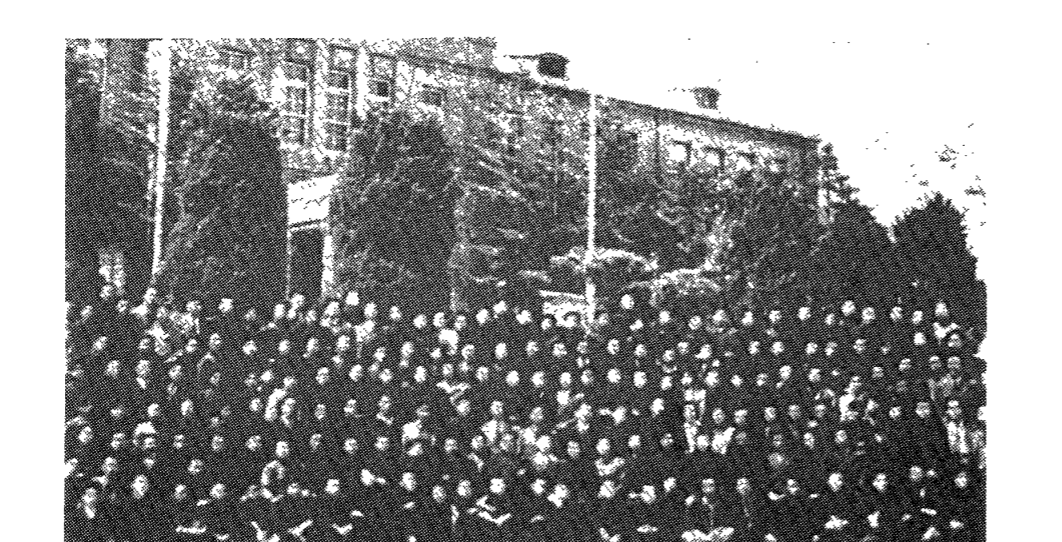
이제 해방이후 동국대학교가 불교계와 더불어 이 사회에 반 민족적 반민중적 대학의 모습을 지양하고, 동대 83년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인 1989년 가을의 오늘, 통국가족 각 구성원들의 바램과 뜻을 바탕으로한 민주적 총장선거제도에 의해서 뽑을 제12대 총장선거에 즈음하여 종립대학으로서의 동대를 올바르게 자리매김 시켜야 할 때이다.

2. 불교계에서 세운 배움터

1906년 5월 8일 동대의 전신으로서 당시 조선불교 17개 법산(교구부사) 가운데 수사(법사)인 원종사대 문을 연 명진학교는 불교의 현대화를 고민하면서 신불교운동을 전개해오던 흥일종(초대이사장), 이보남(초대교장), 이회광(2대교장), 나철중, 김철중등의 불교신자들로 의회 세우졌다. 이들은 「근대사회를 지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포교와 흥학의 사업을 성취하려면 불교도에게 신학문을 배우게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를 갖추는 것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중앙(서울)에 전문학교, 정도의 불교학교를 세웠다.

학교운영의 기틀마련은 전국의 16개 중법산(교구부사) 이상의 사찰에서 불교 사부대중이 정성스럽게 마련해 상보에 중앙의 정도를 출자하였다. 명진학교의 입학료는 13세이상 30세 미만의 승려로 불교강원에서 사비과(국립학교 과정) 사비과(중학교 과정) 사비과(고등학교과정) 대교과(대학교과정)를 이수하고 중법산의 추천을 받은 자로만 규정하여 2명씩 추천하게 하였다. 학교과정은 주로 승려에게 신학문을 가르쳐 포교의지를 양성하고 하기 때문에 불교교육보다 주로 의전(일반학문)에 더 많은 시간이 배당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명진학교는 개교 5년만에 불교고등학교를 개편, 발전시켰으며 불교고등강습(1914·7), 중앙학원(1915·11), 불교



해학전문학교 당시 校舍앞에 모인 전교생들

전수학교(1927·10), 중앙불교전문학교(1930·4)로 발전해 갈 때 까지 불교학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3. 일제하의 조선불교사

1876년 2월 일본은 조선에 있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인 조일수호조규를 강제로 체결하고 개항을 하게 하였다. 이어서 일본은 모든 제국주의가 그러하듯이 종교선교사도 불교승려를 조선에 침투시켜 그들 지배체제의 구축을 위한 첨병으로 삼았다.

부산에 최초로 일본불교의 포

계승되어 일본제국주의에 지속적으로 대항하였으며 이 일제하의 동등은 높고 약한 조선불교에 일대 걸림돌을 불러일으킨 조선불교 최초의 조직운동이자 의식운동으로서 이후 모든 근대적 불교운동의 뿌리가 되었다.

이후 조선불교계는 총독부의강압적인 통치에 순응하지 않으면서 1919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민족해방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한용운, 백용성, 중앙학원학생, 불교청년들과 함께 일제의 억압적 통치에 항거하면서 투옥과 교포를 겪었던 불교계는 독립운동을 하는 지식들에게 큰 자극을도

호 아래 자기의 기독교를 위협하는 혁신세력을 좌경으로 매도하여 탄압하고 혁신세력의 활동거지인 일부 적산사찰들을 박탈하는 등 반민중적 반민중적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들은 또한 독립투쟁의 수단을 전유하여 친인파와 친미파의 근거지인 한민당과 결탁하고 정치권력파의 밀착속에서 한국전쟁 이후까지 기독교를 유지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해 갔다.

불교혁신세력들은 일제 식민지하의 불교유신운동의 맥을 이어 불교혁신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파제는 식민지 불교침탈을 일으키고 민족적 자주불교

「포교」와 「興學」위해 설립

중앙학원시절의 「학생행부」에 대한 기사(동아일보 1921년 10월 5일자)

사의 대다수가 강제타의로 사임하게 됨으로써 결의로 학교는 일본학교, 일본승려, 일본학생중심

관한 이선군(8대)이 관선총장으로 임명되었고 4년뒤에는 또 다시 정재각(9대)이 관선총장

의 배움터가 되어버렸다.

해방을 맞이하여 재건법인 조계학원은 오랜 정에서 벗어나 학교발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1946년 9월 해학전문학교는 통국대학교로 승격되어서 한바탕 판 목적을 중추하여 그 「터」를 닦았다. 이렇게 학교일화정정을 이치고 40대 1을 기록한 통국대학은 국내 최고의 감산지를 자랑하였다. 그러나 재단 운영권을 둘러싼 해고파 싸움에 의해, 정사승 27명의 승려들이 사퇴하자 하물며 승려들이 학교의 기세가 꺾이고 학생들은 교수들을 따라 전학하였다.

1950년 6월의 정정은 우리대학을 새로 시작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부산 피난지의 임시대학을 시작으로 다시 서울로, 돌아온 동대는 1953년 2월 6일 국내 최초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1954년 5월 21일 미군과 이승만의 정적화 의도아래 발표된 1차 불교정화유치는 비구와 대승승의 싸움을 불러 일으켜 동대의 새로운 발전의 열기를 무뎠게 하였다. 당시 27명의 승려들이 사퇴하자 하물며 승려들이 학교의 기세가 꺾이고 학생들은 교수들을 따라 전학하였다.

1950년 6월의 정정은 우리대학을 새로 시작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부산 피난지의 임시대학을 시작으로 다시 서울로, 돌아온 동대는 1953년 2월 6일 국내 최초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1954년 5월 21일 미군과 이승만의 정적화 의도아래 발표된 1차 불교정화유치는 비구와 대승승의 싸움을 불러 일으켜 동대의 새로운 발전의 열기를 무뎠게 하였다. 당시 27명의 승려들이 사퇴하자 하물며 승려들이 학교의 기세가 꺾이고 학생들은 교수들을 따라 전학하였다.

사부대중 공양모아 원홍사에 터 마련 계급·민족모순 혁파위한 보살행 절실

교를 시작한 일본불교 진종 대교과 본원사 선교사인 오쿠무라에 이어서 1890년에는 일본 조계종 승려 다케다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고종32년인 1895년에는 이미 조선에 와있던 일본 일련종의 승려인 사노로 하여금<도성출입금지>라는 조선승려들의 「5백년래의 억울한」을 풀어준다

1902년(광무 6년) 대한제국 정부는 불교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불교의 인식을 중앙(서울)에 대법산 1개 사찰과 지방에 중법산 16개 사찰을 두어 관리한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였다. 일제가 40여년동안의 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해 줄기찬 싸움을 벌여왔던 우리 민족은 우리 손에 의해 스스로 해방을 끌어안지 못하고 마소 두 장대국에 의해 주어진 타락된 관복을 받아들인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국이 소련에 제안한 잠정적인 군사분계선으로서 38선이 그려지고 우리 민족은 분단의 아픔을 맛보게 되었다. 45년 9월 8일 오후 1시 미군정이 인천항에 상륙한 이래 제국주의 침략의 수반인 것은 일제하의 적산의 처리와 총독부로부터의 통치권이 양이었다. 이들은 상륙직후 여러 차례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정면군으로서의 성격을 노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민족종교인 불교에대한 정적에 있어서도 철저한 탄압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불교계내에도 친일배승려 출신들이 불교계의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민족종교로서의 불교

아보내고 민족해방운동을 음양으로 가담하면서 일제와 줄기잡게 세워왔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에 빌붙어 친일과 부역에 일삼았으며 1940년의 전후에서부터는 한국선민화의 지배논리에 동화하여 일본천황의 무사행위를 비는 기도를 큰 범람에서 아침 저녁으로 불경하며 내선일체, 황제개명을 앞다투었던 승려들도 다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4. 정권에 침탈당하는 불교계와 동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였다. 일제가 40여년동안의 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해 줄기찬 싸움을 벌여왔던 우리 민족은 우리 손에 의해 스스로 해방을 끌어안지 못하고 마소 두 장대국에 의해 주어진 타락된 관복을 받아들인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국이 소련에 제안한 잠정적인 군사분계선으로서 38선이 그려지고 우리 민족은 분단의 아픔을 맛보게 되었다. 45년 9월 8일 오후 1시 미군정이 인천항에 상륙한 이래 제국주의 침략의 수반인 것은 일제하의 적산의 처리와 총독부로부터의 통치권이 양이었다. 이들은 상륙직후 여러 차례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정면군으로서의 성격을 노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민족종교인 불교에대한 정적에 있어서도 철저한 탄압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불교계내에도 친일배승려 출신들이 불교계의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민족종교로서의 불교

의 배움터가 되어버렸다.

해방을 맞이하여 재건법인 조계학원은 오랜 정에서 벗어나 학교발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1946년 9월 해학전문학교는 통국대학교로 승격되어서 한바탕 판 목적을 중추하여 그 「터」를 닦았다. 이렇게 학교일화정정을 이치고 40대 1을 기록한 통국대학은 국내 최고의 감산지를 자랑하였다. 그러나 재단 운영권을 둘러싼 해고파 싸움에 의해, 정사승 27명의 승려들이 사퇴하자 하물며 승려들이 학교의 기세가 꺾이고 학생들은 교수들을 따라 전학하였다.

1950년 6월의 정정은 우리대학을 새로 시작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부산 피난지의 임시대학을 시작으로 다시 서울로, 돌아온 동대는 1953년 2월 6일 국내 최초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1954년 5월 21일 미군과 이승만의 정적화 의도아래 발표된 1차 불교정화유치는 비구와 대승승의 싸움을 불러 일으켜 동대의 새로운 발전의 열기를 무뎠게 하였다. 당시 27명의 승려들이 사퇴하자 하물며 승려들이 학교의 기세가 꺾이고 학생들은 교수들을 따라 전학하였다.

「포교」와 「興學」위해 설립

중앙학원시절의 「학생행부」에 대한 기사(동아일보 1921년 10월 5일자)

사의 대다수가 강제타의로 사임하게 됨으로써 결의로 학교는 일본학교, 일본승려, 일본학생중심

관한 이선군(8대)이 관선총장으로 임명되었고 4년뒤에는 또 다시 정재각(9대)이 관선총장

의 배움터가 되어버렸다.

해방을 맞이하여 재건법인 조계학원은 오랜 정에서 벗어나 학교발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1946년 9월 해학전문학교는 통국대학교로 승격되어서 한바탕 판 목적을 중추하여 그 「터」를 닦았다. 이렇게 학교일화정정을 이치고 40대 1을 기록한 통국대학은 국내 최고의 감산지를 자랑하였다. 그러나 재단 운영권을 둘러싼 해고파 싸움에 의해, 정사승 27명의 승려들이 사퇴하자 하물며 승려들이 학교의 기세가 꺾이고 학생들은 교수들을 따라 전학하였다.

1950년 6월의 정정은 우리대학을 새로 시작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부산 피난지의 임시대학을 시작으로 다시 서울로, 돌아온 동대는 1953년 2월 6일 국내 최초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1954년 5월 21일 미군과 이승만의 정적화 의도아래 발표된 1차 불교정화유치는 비구와 대승승의 싸움을 불러 일으켜 동대의 새로운 발전의 열기를 무뎠게 하였다. 당시 27명의 승려들이 사퇴하자 하물며 승려들이 학교의 기세가 꺾이고 학생들은 교수들을 따라 전학하였다.

1. 한미군사관계의 본질

한 나라가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종속을 받지않고 자주성을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군사·문화 등을 그 나라 국민 스스로가 꾸러나갈 수 있어야 한다. 자주적 독립국가란 다른나라로부터 경제적 내정간섭, 군사적 종속, 경제적 침탈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군사는 정치의 연장이며, 하나의 특수한 형태이다. 군사적으로 다른나라에 예속된 나라는 정치·경제적으로 자립적 국민정체를 토대로 자주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 특히 정치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집단이 군부지배 종속의 원인이 된다.

한국과 같이 정치권력의 중추를 정치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군에 의한 한국군의 지배종속은 바로 미국의 한국정치에 대한 지배종속의 단지 표현만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즉 한국군에 대한 주한미군의 작전지휘 계통이 미대통령-미합참의장-한미연합사령관의 체널로 이루어지는 것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미대통령-미국부수-주한미대사의 체널로 이루어지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치이다. 결국 미국에 의한 한국의 지배종속은 총체적인 신식민지 지배메카니즘속에서 파생된 것이다.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지배종속은 미국의 세계전략과의 상호연관성속에서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미군사관계가 그 자체로 독자성을 갖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일반성의 규정을 받는 한편 남한정권이 갖는 대미예속성이라는 특수성의 규정을 이중적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즉, 전후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재편하기 위해서 미국은 그 재편의 물리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전제로서 강력한 군사동맹체제를 필요로 하였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동맹체는 이 지역에서의 소련에 대한 분쇄,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파괴, 미국 열강력의 지속적 강화라는 의의를 갖는다.

이중 한-미-일군사동맹체제가 있어서 가장 항위체제에 위치한 한국은 미-일로 이어지는 일련의 대사퇴출의 봉쇄선상에서 전초기지로서 위치하고 있으며, 한미군사관계는 이의 산물인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미군사관계를 통하여 이를 뒷받침해주는 각종 조약, 협정, 각서, 의사록 등의 연속적인 법적관계로 더욱 그 지위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미군사관계를 법적으로 지배하는 각종 조약, 협정, 각서, 의사록 등의 조항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미간의 군사적 지배종속의 법적 메카니즘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법적관계 안보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민족민주운동의 대응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총성없는 전쟁상태」를 「합리적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자그마한 노력이 될 것이다.

II. 한미군사조약의 내용과 문제점

현재 한·미간에는 수많은 조약, 협정, 각서, 합의의사록, 양해서 등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미군사관계의 본질을 규명하는 핵심적인 법적관계에서 중요한 몇가지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1. 운영에 관하여

- ① 강의의 운영
 - ※격주 1회가 원칙이었으나 지연된 관계로 10월4일부터 매주 1회 실시
 - ※강의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6시 (2시간 강의)
- ② 수강신청
 - ※수강신청서 배부 : 단대 학생회실 (단대교과위)
 - ※수강신청서 제출 : 단대 학생회실 (단대교과위) → 중앙교과위
 - ※1차 수강신청 : 9월25일 (월) ~ 9월27일 (수)
 - ※1차 수강신청 확인 : 9월28일 (목) ~ 9월29일 (금) 중앙도서관

1. 휴전협정과 미국에 의한 일방적 파기
휴전협정 (1953. 7. 29)은 유엔군사령관 마크·W·크라크와 조선인민군총사령관 김일성·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팡더의 사이에 조인되었다. 여기서 남한은 '대전협정 (1950. 7. 15)을 통해 작전지휘권을 미국에게 빼앗겼으므로 휴전협정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현재에도 휴전협정을 폐기·개정할 자격이 없으며 군사정권위원회에 대표를 내보낼 수도 없다.

휴전협정 내용에서 핵심을 이루는 조항은 「엄격한 군비통제」를 규정하는 2조-「정화(淨化)」

여 납득이 가지않는다. 결국 휴전협정의 파기는 미국의 무제한의 군비경쟁을 통한 미국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속에서 파생된 음모의 결과인 것이다.

또 4조 60항에 「한국문제와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쌍방사령관은 관제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3개월내에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 철수·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고 하였다. 이 규정은 전쟁의 관료제를 합 의하는 평화협정의 시급한 체결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총선거 실시전에 모든 외국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북한·중국과의 주장에 대해 「통일정부수립후 UN군에 철수」라는 입장을 고집함으로써 회담을 결렬시켰다. 그 이

후 6조-「본조약은 무기한으로유 효하다」고 함으로써 미군은 미 국측이 필요로하는 한 영토의 어느지역이든 자신의 군사 기지로 사용할수있게 권에서 연유한다.

또한 동조약 제2조에서 「당사국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적으로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강화시킨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핵전쟁연습」 「공격적 전쟁훈련」이라고 비난 받는 틸스피리트훈련의 법적근거이자 미국이 별도의 협정이 단 독적으로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 입,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다.

한 법적근거가 되고있다.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스티븐의 「전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라고 한 발언은 이의 불명백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또 의사록의 「한국측의 이행사항」에는 첫째, 한반도 국토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의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엄연히 통일의 주체가 외세가 아닌 한반도 민중이어야 할데도 불구하고 남한의 통일정책 조차 미국의 이익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총체적인 사실을 대변한다. 둘째로 「부속B」에 규정되어 있는 국군병력기준과 원칙의 수락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국군병력기준과 원칙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남한의 막대한 군사력이 대북지역이 아니라 동북아전제

적인 기초로서 「주둔국지원」 또는 「전시주둔국지원」이라는 새로운 군사협정을 동맹국과 체결해왔고, 지금도 협정대상국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84년 「비상대비 자 원관리법안」 입법, 87년 제19차 한미연합군사령관회의에서 이 양해서에 체결했고, 이번 8월에 개회된 21차 안보회의에서는 「양국 대표단은 이미 제안된 전시주둔국지원협정의 조기타결이 유사시 미 증원군의 조기전개 및 한미연합군의 전진지속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전시주둔국지원협정은 한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부담을 지게한다. 이것은 「전시주둔국지원」이 행정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즉 평시의 미군의 해외주둔권을 규정할 행정협정이 현상유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 (50. 7. 12)으로, 여기에서는 미군법령에 대한 수사 및 재판관할권이 전적으로 미군법령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군법령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다. 그 후 미군에 의한 해외일수 없는 만행에 의해 거대한 한국민의 분노에 부딪치자 한미양국은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이행정

마저 문제점을 또다시 야기시켰다. 즉 한국정부의 1차적 「재판관할 포기권」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미군법령의 동의없는 미군에 대해 구속 또는 재판을 할 수없게 되었다. 실제로 67년 개정협정 발효후 20여년간 모두 3만3천88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으나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0.7%인 2백33건뿐이었다. 그야말로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치의법적 특권이 부여된 전적이 없는 것이다.

그밖에도 민사청구권, 시설과 구역의 사용권, 86년 미8군기지도 통지파업투쟁으로 나타난 노동권리 조항, 관세 및 출입국 조항 등이 있다.

III. 결론에 대신하여

이상 한미군사관계의 법적 관계인 각종 조약, 협정 등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한미군사관계를 바라보는 가장 올바른 관점은 주한미군의 문제를 단지 군사기지의 이전이나 예속적인 몇 개조항의 전시협정은 국내의 법적관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5. 한미행정협정
주한미군이 이명에서 은곳 범죄·강간, 절도, 집단incest, 마약중독, 불법총살 및 치사, PX부정, 교통법규 등을 지으면서 활개를 치는 데는 나름대로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것을 규제할만한 법적구속력이 부족한 예속적 한미군사협정에 따른 것이다. 그 대표적것이 한미행정협정 (67년 2월)이며 간단히 「주둔국지원협정 (SOFA)」라고 한다.

이제 SOFA의 전신은 「재한 <한겨레사원연구소>

한미 평화협정인가

◀경무대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하는 변형태 외무장관과 필레스 미국무장관 (1953년 8월 8일)

한국은 "허용" 미국은 "수락"



통일정책조차도 독자적 수행 불가능 대전협정으로 군사작전권 미국에 이양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내용」과 「외국군 철수와 평화협정의 체결」을 기약하는 4조 60항-「쌍방 정부에 건의」이다.

먼저 2조13항을 보면 「한국 국경방위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 무기반입 금지조항은 57년 6월 21일, 군사정권이 UN대표가 「북한 및 중국측이 유 조항을 무시했기 때문에 UN군은 남한에 군대병기를 들여오고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한국군의 근대화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파기되었고 그 결과 핵무기도입을 비롯한 부제한의 군비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북한이 경제건설조차 힘에 겨웠고 소련이나 중국의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에 세계최강의 미국과 군비경쟁을 한다는 것은 전

후에도 미국은 북한의 계속된 「평화협정」 체결요구를 거부하면서 한반도에서의 대결구조를 지속시켜 왔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휴전협정 위반의 합법화
한미상호방위조약 (1954. 11. 18)은 휴전협정의 핵심조항을 파기한 미국의 군사적 의도를 한미간에 영구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동조약 제4조는 「대한민국은 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근 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용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한반도의 어느지역이든 미군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미군은 한반도내에서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않은 채 활동할수있게 되었다. 더구나 이조약이 유예기간 없는 불명확한 조약으로 명칭(?)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3.한국에 대한군사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 -작전통제권이 양의 법적근거
한국군의 군작전지휘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것은 한국전쟁중인 50년 7월 15일, 이승만이 「대전협정」을 통해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은 기쁘게 여기며... 그 지휘에 들어가는 것을 한국군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한 조항에 의해서이다. 그런데 이는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만 (during the period of the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유효한 잠정조치로서 전과 더불어 시효가 만료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지후 이승만은 합 의의사록 (1954년 11월 17일) 제2항에서 특강을 규정해 다시 명시하였고, 이것이 현재까지 미국으로 하여금 남한의 정치적 주권의 일부인 군작전지휘권을 갖게

에서 미국의 안보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한국군은 미국의 필요에 의한 용병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미국의 유력지 「군사법본」의 「한국군은 미국의 지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표현은 이를 잘 입증해 준다.

4. 전시주둔국지원에 관한 양해서-전시체제의 완성
78년 한미연합사의 창설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분담」이라는 새로운 안보협력을 요구해왔다. 이는 미국의 대소전략에 필수적인 동맹국과의 공동작전체제 확립을 목표로 하고있다. 즉, 동맹국내의 전쟁물자 사정비축, 군사기지 강화, 미군의 지휘권강화 그리고 해당 동맹국내의 전시입법의 확립을 총체적인 현지 동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방위분담의 법

적의 성격을 갖고있는 반면 전시협정은 최악의 사태에 대응한 것인만큼 무제한의 군사부담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도 한가지 덧붙이면 이들 일련의 전시협정은 국내의 법적관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SOFA의 전신은 「재한

「반학자투세력 은 폭문으로나 나십시오」

「저는 학생대표자이고, 반학자투세력들의 당당함에 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며 응수하고 내려지지 않는 셔터 대신에 유리문을 잠그고 대자보를 붙였다.

「적반하장도 유 분수지...」

이런 사건에서는 그동안의 교수님들이 보여주었던 주체(?)의 당당함, 학교당국의 무 책임성들을 다시 확

인할수 있었던 계기였다.

과연 학원자주화의 주체가 누구고, 학사행정의 책임은 어디로 실렸는지, 우리대학의 심장부 뿐만 어느곳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 없었다. 본관을 내려오는 기차의 머리에는 좌면 학자투세력 후문예를 여겼던 대자보의 글귀만이 어 지러 머물렀다. 「학자투 2년 동안은 아직도 내부수리중」 <유권준기자>

수없이 나온 학생처장과 총무처장에게 또 한번 실망할수밖에 없었다.

실상가상으로 학생처장의 「야 X X, 아무개야」라는 말과 학생과교와의 「이 X X이 뭐하는 짓이냐」라는 학생대표자의 대표성을 부정해버리는 폭언으로 학생들의 분노는 다시 폭발했다.

「저는 학생대표자이고, 반학자투세력들의 당당함에 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며 응수하고 내려지지 않는 셔터 대신에 유리문을 잠그고 대자보를 붙였다.

「적반하장도 유 분수지...」

이런 사건에서는 그동안의 교수님들이 보여주었던 주체(?)의 당당함, 학교당국의 무 책임성들을 다시 확

인할수 있었던 계기였다.

지금 당장 특강 수강신청을 합시다 !

- 드디어 특강이 실시됩니다.
-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학교당국의 무성의와 중앙교과위교수들의 음모로 지연되고 우리를 주체역량의 부족으로 방기되어왔던 특강이 실시됩니다. *특강*은 정규교과과정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좀 더 진보적이고 민중지향적인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고 우리들의 학문·사상의 자유를 실현하고자하는 제도입니다.우리는 어떠한 음모와 방해 받더라도 특강을 포기할 수 없었으며, 우리 학생들 단독으로도 실시를 준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2차 수강신청 : 10월4일 (수) ~ 10월6일 (금)
- ※최종 수강신청 확인 : 10월10일 (화) ~ 10월11일 (수)
- ③장소 : 중강당
- ④특강 학점인정과 사수를 위한 서명작업 : 10월4일부터 시작

2.내용에 관하여

강좌	명	강사명	일	시	장소
한국 교육현실의 비판과 전망	미정	미정	10월 4일	수요일 4시~6시	중강당
민족적 민중적 학문을 주장한다	미정	미정	10월 11일	수요일 4시~6시	중강당
현대문학의 현황과 전망	미정	미정	10월 18일	수요일 4시~6시	중강당
인류와 핵	미정	미정	11월 1일	수요일 4시~6시	중강당
북한의 사상	미정	미정	11월 8일	수요일 4시~6시	중강당
한국사회와 법	미정	미정	11월 15일	수요일 4시~6시	중강당
과학기술 운동의 현황	미정	미정	11월 22일	수요일 4시~6시	중강당
영화 감상	미정	미정	11월 29일	수요일 4시~6시	L101

특강의 사활과 학점인정의 쟁취는 우리들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모두 광범위하게 특강에 결집함으로써 우리의지, 합의문의 사수와 학원자주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시다.

중앙교과과정 학생위원회

1. CIA와 한반도에서의 실체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입안은 주로 CIA와 국방부, 주한미사령부, 주한미대사관들이 이루어지고 국가안전보장회의(의장: 대통령)에서 최종결정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지배기구는 CIA 한국지부, 주한미사령부, 주한미대사관들이 있다. 이중 CIA 한국지부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고 남한역사속에서 남한 독재정권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틸라 부대에 대한 정밀조준 폭격을 위한 소련잠수정 비행기 이용으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등 맹렬한 살상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한파 더로 그레그는 그의 반혁명 동안 미국의 정보공작에 충실히 복무하며 제3세계 국가들에서 민주와 민족해방운동을 알선하고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야수적 살인마요, 공작 정치의 명수인 것이다.

1) 한국 CIA지부 재임시 공작활동

1973년부터 1976년까지 그

니가 이스라엘의 78년 8월 마 이니치신문과의 회견) 1976년 미국으로 돌아온 후 그레그는 HSIC(하인정보위회)에서 CIA측 담당자로써 일하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 1976년 10월 6일 텍사스대학에서 열린 강연도중 『만약 박정희대통령이 차기 6년임기에 다시 도전한다면 물론 박대통령은 도스(도스)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레그가 이 단계에서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콘트라 지원자금 전입

건의함에 따라 이스라엘을 매개로 이란에 대전자 투우미 사들음을 판매한다.

이란은 그대신 미국인 인질들을 석방했다. 이과정에서 무기판매대금 가운데 3백80만달러가 스위스은행의 비밀계좌를 통해 콘트라 지원을 위해 쓰인다. 이 단계에서는 CIA가 주도적 역할을 하며 무기판매대금 전입은 도스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레그가 이 단계에서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콘트라 지원자금 전입

3. 주한 미대사 그레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들의 반독재투쟁으로의 적극적진출과 이의 반미투쟁으로의 발전, 기층민중들의 엄청난 자주의 진출, 조봉부장의 확산으로 인한 민족단결의식의 고취등 최근 구국운동의 현저한 역할강화는 미국과 노경권을 점차 공지로 끌어 올리고 있다. 이와같은 한국민중의 광범위한 진출과 대외정권의 불안정성의증대에 따라 미국은 「진미·반공적 보수대연합」의 구축을 통해서 자신의 한국에 대한 지배를 안정화하고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 위해 미 CIA의 비밀공작활동을 유례없이 강화하고 있다. 「천미반공 보수대연합」이 바로 현 시기 「저강도 전성」 전략의 실질적 내용이다. 이는 특정 정치부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미국의 부시는 이러한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CIA 경력 31년이고 비밀공작활동의 베테랑이며 CIA 한국지부장 경험을 통해 한국의 지배세력과 보수야당에 뿌리 깊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그레그를 특별 파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레그는 최근 미국내에서 박종진주미대사, 김복중, 김충현, 현충주법제처장, 민정당국회의원 박정수, 이태섭등과 연세철학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IA 한국지부, 주한미사령부, 미대사관등 미국 의 현지집결지에는 두벌제 CIA 출신 미군사관이 60여 명의 취임을 계기로 80년 이후 CIA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온 과정이 보여진다. 이는 미대사관 자체가 CIA 부장 방식의 정보공작체제로 개편, 보다 활발한 비밀공작으로 「천미반공 보수대연합」을 구축하려는 공세가 거세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김진만 <정치평론가>

독소소항철페가열쇠

교육법 개정의 방향

교육법이란 법률 제86호인 「교육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관계의 모든 법령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칭 교육법규 또는 교육관계법이라 한다. 교육법규에는 헌법, 교육법과 그 시행령,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세법, 사회교육법 등 교육에 관련된 모든 법률과 명령, 조례, 규칙 등이 포함된다.

현행 교육법규는 그 근원을 일체의 식민지통치에 두고 있으며 그 반민족, 반민주적 성격이 일관되게 계승되어 온 것이다.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독재세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파도가 높아감에 따라 교육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르렀는데 이 선두에 선것이 바로 교사들이었고, 그들의 조직인 전교조였다. 교육법 개정운동은 전교조에 의해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되고 이끌려왔다. 이에대해 정부는 교육법의 전면적 개정요구를 막기위해서

나들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지 않을수 없게되었고, 전교협이 전교조로 발전해감에 따라 발동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정부여당은 「교육관계개선특별법안」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전교조의 예봉을 꺾고 교육법 개정의 방향을 왜곡하고자 하였다.

첫째, 노동3권을 가진 교원노조의 결성을 허용하여 교사들의 자주성, 전문성을 전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에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통제에 대응할수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와 임시제도에 대한 심의하고 결정하는것을 국가권력의 독점에서 해방시킴으로써 국민각계각층의 요구를 올바르게 반영시킬수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공교육비의 비중을 높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키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넷째, 학생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자치활동을 장려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학생의 자주성을 신장하고 학생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기틀을 제공해야한다.

다섯째,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적지지를 지양하고 국가적 지원

을 확대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신장시켜야 한다.

결국 교육법 개정의 방향은 부당한 독재권력의 교육통제를 막고, 교사·학생·학부모 교육 주체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여, 교육의 개혁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야 하며 민중의 배울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기만적 개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교육주체의 권리 보장해야 기만적 타협안 철저히 경계

원을 확대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신장시켜야 한다.

결국 교육법 개정의 방향은 부당한 독재권력의 교육통제를 막고, 교사·학생·학부모 교육 주체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여, 교육의 개혁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야 하며 민중의 배울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기만적 개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황 호 영 <신상종교사>

정부여당의 두 특별법안은 일시적으로 교육개정을 축소하여 학부모의 반발을 잠재우려 하는 극히 정략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최소한 교육법개정 방향은 다음의 내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노동3권을 가진 교원노조의 결성을 허용하여 교사들의 자주성, 전문성을 전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에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통제에 대응할수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와 임시제도에 대한 심의하고 결정하는것을 국가권력의 독점에서 해방시킴으로써 국민각계각층의 요구를 올바르게 반영시킬수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공교육비의 비중을 높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키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넷째, 학생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자치활동을 장려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학생의 자주성을 신장하고 학생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기틀을 제공해야한다.

다섯째,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적지지를 지양하고 국가적 지원

을 확대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신장시켜야 한다.

결국 교육법 개정의 방향은 부당한 독재권력의 교육통제를 막고, 교사·학생·학부모 교육 주체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여, 교육의 개혁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야 하며 민중의 배울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기만적 개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황 호 영 <신상종교사>

교육주체의 권리 보장해야 기만적 타협안 철저히 경계

원을 확대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신장시켜야 한다.

결국 교육법 개정의 방향은 부당한 독재권력의 교육통제를 막고, 교사·학생·학부모 교육 주체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여, 교육의 개혁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야 하며 민중의 배울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기만적 개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황 호 영 <신상종교사>

「천미반공 보수대연합」 구축위한 음모

「그레그」 주한 미대사 부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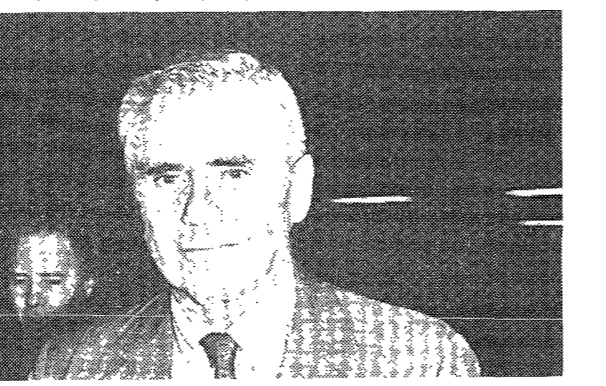
로 검토해 보는것은 현 시기에 있어서 CIA출신 그레그의 미대사 취임성격을 보다 분명히 해줄것이다.

CIA 한국지부는 주한미대사관 내에서도 가장 비밀스런 부서로서 현실상 대사관에 편제되어 있지만 대사관이 미국부속성산인 것에반해 미국에서는 CIA본부의 직접적인 지휘와 통제를 받는 독자적인 조직이다.

CIA 한국지부요원은 미국 회사의 상사원, 평화봉사단원, 미문화원 직원, 외신기자들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대사관의 정치과 등에 근무한다. 지부장의 공식직함은 대사특별보좌관으로 한국중앙정보부차관으로 한국중앙정보부차관으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미대사관 7층은 부전실로서 CIA 한국요원과 NSA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수집한 모든 정보가 이곳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필요한 정보수집이 공식입력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CIA 한국지부는 4.19 5.16유신선봉 김대중남치 10.26 6월항쟁등 한국현대사의 격변기에 청와대도 자유지사로 도출할 수 있는 막강한 정보력과 수많은 첩보원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독재권력의 생명줄을 쥐고 한국정치의 실질적 연줄자로 활동해왔다.



제3세계 민주세력분쇄 주도 5공탄생·광주학살과도 밀접

그레그는 당시 유신독재의 촉입통치기 난무하는 가운데 CIA 한국지부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제 2대 지부장인 그레그의 재임중 가장 중요한 일은 김대중 납치사건이었다.

박 정희가 유신을 선포할 때 일본에 있던 김 대중은 귀국을 단념하고 해외에서 반 유신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이 후라 정보부장은 박 정희의 지령에 따라 73년 8월 8일 동경 팔레스 호텔에 머물고 있던 김 대중을 납치 살해하려했다.

그러나 미국은 박정희의독주를 견제하고 박정희와 보수야당 모두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손쉽게 조종할수 있는 기회로 삼기위해 이 사건을 이용하였다. 그레그는 미국 국가정보국의 전지도정찰을 통해 박정희가 주일 한국대사관에 보낸 모든 지령을 도청하여 한국내 CIA 지부와 일본내 CIA 지부로 하여금 이후락의 김대중 살해를 저지케 하였다. 그레그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범행에 가담한 정보부 공작원, 범행 방법, 연행된 과정, 오사카의 안전가옥에 감금된 사실, 배까지 운반된 상황 등에 대해 CIA본부에 상세히 보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CIA가 한국중앙정보부에 지령을 한것이요. 강대국은 즉여서는 안된다고 지시를 내렸고요. 나는 김씨가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일본 법무성장관 다

베그는 당시 유신독재의 촉입통치기 난무하는 가운데 CIA 한국지부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제 2대 지부장인 그레그의 재임중 가장 중요한 일은 김대중 납치사건이었다.

박 정희가 유신을 선포할 때 일본에 있던 김 대중은 귀국을 단념하고 해외에서 반 유신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이 후라 정보부장은 박 정희의 지령에 따라 73년 8월 8일 동경 팔레스 호텔에 머물고 있던 김 대중을 납치 살해하려했다.

그러나 미국은 박정희의독주를 견제하고 박정희와 보수야당 모두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손쉽게 조종할수 있는 기회로 삼기위해 이 사건을 이용하였다. 그레그는 미국 국가정보국의 전지도정찰을 통해 박정희가 주일 한국대사관에 보낸 모든 지령을 도청하여 한국내 CIA 지부와 일본내 CIA 지부로 하여금 이후락의 김대중 살해를 저지케 하였다. 그레그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범행에 가담한 정보부 공작원, 범행 방법, 연행된 과정, 오사카의 안전가옥에 감금된 사실, 배까지 운반된 상황 등에 대해 CIA본부에 상세히 보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CIA가 한국중앙정보부에 지령을 한것이요. 강대국은 즉여서는 안된다고 지시를 내렸고요. 나는 김씨가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일본 법무성장관 다

방향을 암시하기도 했다.

10·26, 12·12때 그레그는 NSO와CIA를 연결시켜주는 파견근무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 때 그는 전두환의 정권강안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레그는 전두환을 적극 지지하도록 NSC를 부수함으로써 주한 콘트라시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 민중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2) 이란, 콘트라 비밀공작의 주역 그레그

이란, 콘트라 비밀공작은 미국의 제3세계 대외정책의 큰가닥이 정삼적인 외교정책을 통하지 않고 비밀공작원들의 음모와 마추의 공작에 의해 추진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해 준 사건이었다. 이 비밀공작은 미국이 비밀적으로 이란에 무기를 불법판매해 그 대금을 니카라과 반군인 콘트라에 지원함으로써 전승한 사건이었다.

이란, 콘트라 비밀공작은 몇개의 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제1단계: 전CIA 요원인 루이스 빌발도의 콘트라 지원활동. 이때 CIA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로부터 배웠던 수백톤의 무기를 입수, 콘트라에 제공했다. 작전주도는 그레그의 「반게릴라 작전」과 일치하고 있다.

제2단계: 이란 비밀공작. 84년 5월 CIA가 이란과의 관계회복방법을 NSC에

은 전체적으로 그의 작전주 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제3단계: 콘트라를 위한 무기지원공작. 이란 무기판매대금 가운데 일부와 CIA의 밀자금으로 국제무기 암시장에서 무기를 구입하고 이를 엘살바도르 주한 콘트라에 공급한다. 무기구입에는 그레그와 로드리게스가 직접 관여한다. 무기구입은 로드리게스가 맡으며 그레그는 이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제4단계: 제3국을 통한 콘트라 지원공작. 주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에 무기밀 경계 원조를 해주고 그 대신 이들 나라들이 콘트라를 지원하도록 했다. 파데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등과도 접촉했다.

이 단계에서는 CIA국장인 케이지,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인 맥클레인이 주로 정책결정을 강요한다. 또 3국과의 교섭에는 부시 당시 부통령이 큰 역할을 맡았다.

여기서 그레그는 로드리게스로부터 현지상황을 보고 받고 부시에게 전달한다. 전체적으로 그레그는 콘트라 지원정책 결정과정에서 게릴라 작전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그레그는 이란 콘트라 비밀공작과정에서 소위관리들의 정책결정과 실무진들의 실제 공작활동 모두에 깊숙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있다.

2. 그레그는 어떤 인물인가?

그레그는 윌리엄스 대학을 졸업한 직후인 1952년 6월 CIA에 들어가 일본(53-63), 버마(63-70), 베트남(70-72), 한국(73-76), 워싱턴 본부(77-78), NSC 파견(79-82) 등 30년간 근무했다. 그의 첫번째 공작지역은 마리아나 섬이었다. 중국 의 소수민족을 부정계밀파로 양성, 중국내부에 밀파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정부를 교란, 전복시키려는 CIA의 작전에 이 무장계밀파의 훈련과 관리가 총싹이 복부했던 것이다.

또 그는 베트남에서 비엔호 아세션의 책임자로서 불사조작전을 전개한 바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게릴라 초토화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소규모 게

리안에서 진실을 호도하고있는 것은 전교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부당국이 전교조기밀교사에게 교묘하고 악랄하게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는데요.

—우스는 이야기지만 민정당의원들은 1인당 전교조 선선 2명을 받아 탈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전혀 무관한 형사 동지원

기 때문입니다. 그 실례로 전두환 독재시대에 친정권 성립을 위하여 여러차례 발표된 전두환에게 병풍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참교육」 운동에 가장 결집되어 있는 교육인련회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금지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헌법에 노동3권을 보장한 것에 위배될 것입니다. 이 위배도 여러 조항이 많지만, 교과서의 저작권, 심사권은 문교부가 독점하도록 규정한 교육법제27조도 「참교육」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고있었습니다.

—고교생들이 선생님들의중징계와 관련, 가두시위, 집회 가점받은 수업을하고있는데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배입니다. 일부일진지에서 마치 선생님들이 학생을 부수한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가정방문수업 등 사제간의 만남은 문교부가 여러 차례 사제간의 회를 차단했기 때문에 아예 수 없이 자를 전혀 하지 못했었고 오구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인터뷰

학생들에게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교원단체에서 서서는 이 땅의 모순된 사회현실.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의 새 지평을 열고자 1천7백여명의 해직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투쟁하고 있는 전교조.

지난 14일 전교조가 2기 출범함에 즈음하여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이호영 선생님을 만나보았다.

—먼저 전교조 2기 출범의 배경·의의·추후 방향은?

—사실 2기 출범 이전의 「참교육」 운동은 공안정국과 맞물려 외롭고 수세적인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2기 출범과 더불어 조직을 개편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 「참교육」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조직부원·후원회 결성, 연합집회, 각종

전교조2기 활동방향

문화행사를 통한 홍보작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부 일진지 보도에 의하면 현재 노조가입교사가 43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정부와언론이 여론조작을 위해 보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탈퇴하는 유익한 합법단체이지고 신규가입교사만도 98백 명이고, 비 공개로 조합비납부 등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가 6천명 이상입니다.

또한 대학교수 조합원도 4백 75명이나 됩니다. 정부당국과

문화행사를 통한 홍보작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부 일진지 보도에 의하면 현재 노조가입교사가 43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정부와언론이 여론조작을 위해 보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탈퇴하는 유익한 합법단체이지고 신규가입교사만도 98백 명이고, 비 공개로 조합비납부 등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가 6천명 이상입니다.

또한 대학교수 조합원도 4백 75명이나 됩니다. 정부당국과

동국의 자주적 혁신을 위한 범동학 대 토론회!

1989년 9월 28일 (목) 오후 2시 / 중강당



- ◇토론주제
 - 부정입학의 진상규명에 대하여
 - 민주적 총장선출과 재단 혁신방안에 대하여
 ※토론자: 주관단체 및 토론 초청단체별 각 2인
- ◇주관단체

총학생회 / 노동조합 / 대학원학생회 / 조교협의회 / 불교도연합회
- ◇토론초청단체

재단 / 종단수습대책위원회 / 학교당국 / 교수회 / 동문단체 (총동창회, 민주동문회, 석림동문회)

 ※토론초청단체의 공식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참가도 가능

주최: 동국의 자주적 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구실 장박으로 보이는 교수가 별별구호와 선전 문구가 가득한 플래카드를 어수선하게 하지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의 머위는 뒷전으로 물러난듯 한결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한다. 부정입학 등으로 꼭 가라앉은 학교 분위기에 이것저것 신경이 안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른 아침의 신선한 기운이 황교수로 하여금 기분좋은 미래의 환상을 펼쳐는데 한껏 가슴을 부풀리게 한다. 요즘

다. 오랜만에 맛있게 먹은 점심이 모래알을 삼킨 것처럼 속을 바짝 끓여준다. 지구 소문내고 퍼져져왔던 거시기거기고 누워서 침뱉기만했던데



“학생이 밀어졌다는 거야”

들어 황교수는 부끄럼 명상(?)을 즐긴다. 총장 황경수! 총장이 하는 말이긴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마치 총장공하인 이순신, 대통령하인 전두환이라는 말이 이따기게 잘 어울라듯이 이 말도 애초부터 딱 만들어져 나온 말인듯이 좋은 효과를 이루는 것만 같다. 문득 황교수의 입가에 누가 보던 율곡이리라고 오해하기에 충분히 미소가 떠오른다. 『마르르름, 마르르름... 황교수의 평상을 깨며 힘찬 소리로 전화벨이 울린다. 『어보세요. 네 맞습니까...』 아! 김국장께서 어쩔 일...』 예. 예. 별일없습니다. 그렇잖아도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예, 이번엔 잘피웠습니다. 물은 헹구는 알갱지만으로. 의문의 사고가 화져서 원...아 무덤으로. 이빨벌수록 경계당동 해선 안되겠지요. 뭐 벌써 학

처럼게 무모하고 제멋대로 들어에서 어찌자는데인지 황교수는 연례행사처럼 뭘 해달라, 뭘 공개해라 하며 물러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이제 지겹다 못해 측은하기까지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 학교가 누구때문에 이렇게 컸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만한 일일텐데 말이다. 황교수는 문득 자신의 화려했던 지난시절을 돌아본다. 이 학교에 발을 들여 놓은 지 30년, 아니 학생시절까지 벌써 40년 정도나 학교의 산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신이 그동안 교육자로서의 거의 도달사피 하면서 온 재산도 이제는 제법 한 소리 할만할 정도다. 그런데 해도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할 학교를 불명예스럽게 하진 않았다. 황교수는 항상 증거 인멸주의에 입각했던 자신의 행정능력이

은 과 교수가 되기까지 황교수가 쿠무다시피한 오·구교수들을 비롯한 몇명의 교수와 좀 주책맞긴 하지만 학교 정보인인 직원 송과장과 부처장이 참석했다. 황교수가 입을 연다. 『그때, 요즘 총장님은 어때신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많이 신경이 예민해지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보다는 위촉직은 사실이기도 하구요. 계속 총장님이 학교를 이끌어야 하고 차기 선거에도 나오셔야 한다는 총연연제가 시간 날때마다 드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오교수는 언제봐도 믿음직스럽다. 『그 학생들 측은?』 『예상의로 총장님도 아니고 아직은 잠정입니다. 주변 상황이 좀 선뜻 풀어나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학생들 측은 이러나 저러나 끝까지 포기 마친다고 봤을때 오히려 문제는 교수회의가 아닌가 생각해보는게...』 전문부서담계 송과장은 자신있게 나름대로 학생동향을 설명한다. 『그만큼 볼수도 없을걸요. 이번에는 워낙 노조나 동문회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녹초는 않을 겁니다. 벌써 공동대책위가 활기찬 걸 만들어서 교수총장을 유도하고 있고 진작부터는 총장 선출제도를 학교 식구 모두가 모조리 해결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전수전 다 겪은부처장의 담담은 송과장만 한 수 위다. 『그게 도대체 말이 안된다는 거야. 아니 학교를 말아먹으려고 해도 분수가 있지. 교수하고 학생이 밀어졌다는 거야. 어떻게 교수와 학생하고 갈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게다가 이제는 직원들까지 같이 끼려고 하니 이 학교의 장래가 암담하네 암담해. 그러게 작년에 그 말도 안되는 총이족지에 합의해 해준것부터가 책임없는 작자들의 짓이리라고...』 이 땅의 유일한 민중대학이라고 자부하는 황교수는 이 대학의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고 느낀다. 학교를 처음부터 선배들에게서 훔쳐온 것이

이 민주화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이 바로 전체 교수 회의입니다. 학교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별 뽀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라도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쪽 발언으로 왔다 갔다하는 교수들을 붙잡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학생들도 와서 회의를 방해할 모양인데 내책도 좀 세워야 하겠구요...』 언젠가는 임박정 때문에 일을 그르칠것 같은 느낌을 주는 송과장이지만 신명나게 해대는 그의 말투를 황교수는 때때로 그가 기록하는 생각을 한다.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이 황교수에게 묘한 자신감을 가져다준다. 오늘의 도일은 한결 미래를 밝게 해준 의미있는 것이었다고 믿으며 그는 자신의 몸이 한참처럼 더워져 있음을 느낀다. 베타까지 불어오는 바람은 무척 차고 강했지만 황교수는 오히려 담담할 정도의 뜨거운 바람을 느껴질 뿐이다. 문득 황교수의 입가에 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듯한 미소가 천진난만하게 떠오른다. 『가, 걱정을 붙들어 매십시오. 학생들이 방해한다 어떤 한 마디 외침에 의해 무장

황교수는 문득 자신의 화려했던 지난 30년을 회상해본다 보직을 도맡다시피 해 모든 재산도 제법되고, 항상 증거 인멸주의에 입각한 자신의 행정능력이 내심 자랑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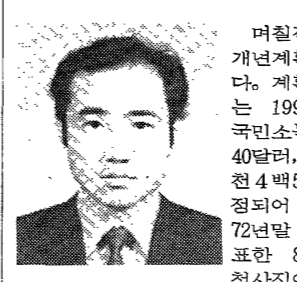
생들은 무슨 일을 꾸미는 모양입니다... 그법요. 작년에나 그전처럼 이번 일은 마음대로 되는 양정지요. 다 국장님 같은 분들이 학원정산화를 위해...예, 예, 그럼 이렇게 전과 주저서... 한편 만나서 밀린 얘기나 좀...예, 하하하.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법요. 이란... 사람을 많이 사판하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특히 정당한 할거를 기입수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황교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명상에 잠긴다. 『부정입학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부정입학 최철하여 학원 자주 완수하라!』 도대체 뭐 제대로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한심하지만 하

내심 자랑스러웠다. 한때는 연간 50억 정도의 수입원을 기졌었다. 사실 말로표현하자니 부정입학이 있었고 배정되는 유부한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는데 얼마나 학교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는지 그 사정을 조금만 알면 너도나도 그 사업에 매달릴것이 분명하다. 새로 부임했던 정총장이 난 대없이 학·처장 회의에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자신의 학교발전의 행진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이런 일이 있긴 사업을 정리한것이 첫 단다. 황교수는 교수실로 향하며 오늘 저녁 여사의 간간히 지내던 교수들과의 약속을 떠올린다. 도서관 앞에서는 얼마 안

『교수하고 학생이 밀어졌다는 거야... 지 원... 그들도 별 뽀족한 수가 없을테니 우리도 학생들처럼 정세분석을 하면서 힘있게 몰아붙입니다.』 문득 황교수의 입가에 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듯한 미소가 천진난만하게 떠오른다. 『가, 걱정을 붙들어 매십시오. 학생들이 방해한다 어떤 한 마디 외침에 의해 무장

『교수하고 학생이 밀어졌다는 거야... 지 원... 그들도 별 뽀족한 수가 없을테니 우리도 학생들처럼 정세분석을 하면서 힘있게 몰아붙입니다.』 문득 황교수의 입가에 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듯한 미소가 천진난만하게 떠오른다. 『가, 걱정을 붙들어 매십시오. 학생들이 방해한다 어떤 한 마디 외침에 의해 무장

달하나 千江에 국민소득 환상



며칠전 제 7차 5개년계획이 발표되었다. 계획기간이 끝나기는 1996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9천 9백 40달러, 또 수출은 1천 4백 50억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문득 1972년말 유신정부가 발표한 80년대의 경제청사진이 생각난다. 1980년대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천달러, 그리고 수출은 백억달러가 될것이라는 내용이였다. 그 발표 전년도인 1971년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백88달러였고 수출이 10억달러였으니 당시로서는 놀라운 내용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던 것 두리는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80년대라는 애매한 표현이 그 마지막 해인 89년의 예측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소득 천달러와 수출 1백억달러는 모두 77년도에 앞당겨 달성되었다. 숫자상의 계획은 달성되었지만 1천달러 국민소득과 백억불 수출이 주었던 행복한 생활의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은 국민이 성실하게 일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희망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환상에 사로잡혔다가 실망하는 일들이 계속된다면 희망이 불신과 의욕상실로 바뀔것은 자명한 일이다. 제 7차 5개년 계획의 목표는 이전의 계획처럼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이다. 그러나 96년의 생활수준이 어떠한 것인지 가늠하기위해서 1인당 국민소득 9천 9백 40달러가 어떻게 계산되었는가를 알아보자. 이는 1988년의 국민총생산에서 기초 연평균 실질성장률 7.5퍼센트를 적용하여 도출한 숫자이다. 즉 지금부터 7년간 7.5퍼센트씩 성장을 한다는데서 나온 숫자인데 1982~88년의 7년간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을 보면 9.7퍼센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1996년까지의 생활향상은 1982년부터 지금까지의 생활향상에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소득 9천 9백 40달러가 주는 환상은 그 이상으로 큰것이며 따라서 목표가 달성된다라도 그때까지는 실망이 뒤따라게 될것이다. 정부의 계획안이 국민들에게 실제 이상의 환상을 심어주는 일은 최근에도 많이 있어왔다. 그중의 하나로 요즘을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는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들이 좋은 예가 될것이다. 지금까지의 토지정책과 비교해보면 획기적인 개선안임을 틀림없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 법안들이 그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하여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것같은 환상을 갖는것 같다. 신도시 계획도 비슷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떤 일각자의 조사를 보니 서울시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신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주하였을때 실망하지 않을 만큼 신도시가 패적인 삶을 보장해줄지는 상계쯤 아파트비리까지 우란 보더라도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의 계획들이 거짓이거나 실현되지 않을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결과에 대하여 국민들이 환상을 갖는것이 문제이다. 이 계획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1차적인 책임은 계획을 발표하는 정부당국에 있다고 하겠다. 7.5 퍼센트의 성장보다 1인당 국민소득 9천 9백 40달러를 강조해 발표하는 등 그러한 환상을 가져오게 하기때문이다. 또한 7.5 퍼센트의 성장에 총국민소득의 성장을 못하며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률은 여기에서 인구증가율을 빼야한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연평균 7.5퍼센트 성장률이라는 수치를 보면 9.7퍼센트이다. 따라서 국민들도 너무 쉽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각자가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문화단신

노동자「일터의 함성」공연
늘이래 「함두레」에서는 창립15주년을 맞이해 기념공연 노동자 「일터의 함성」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예술극장관공관에서 공연한다. 이 작품은 노동현장에서의 공회공인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창작, 연출된 것으로 연대를 주제로 한지역의 민주노조들이 공동투쟁을 하는 과정에 서 겪는 어려움과 감동을 극적이고 더욱 풍부한 결함을 하는 내용으로 노조단결을 증진시키기, 대결축, 의사소통, 연대충동을 담고있다.

「한두레」의「일터의 함성」의 함성
극단 로렐에서는 제 3회 연극 「피대」(원제: Die grope wut des Philipp Hots)를 하산길에 연출로 오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바람골극장에서 매일 오후 4시 30분과 7시 30분 두차례 공연한다.

「검찰관」공연
성신여대 극예술연구회 제 36회 정기공연인 「검찰관」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성신

동약廣場

여대 중앙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고백리와 작품을 구상목에 기획, 김철리씨가 연출을 맡아 평일에는 6시에 토요일에는 3시와 6시에 각각 열리게 된다.

교육노래집 발간
민중문화운동연합에서는 참교육을 위한 노래모음집 「우리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를 제작·발매한다. 전교조 지지부쟁의 대중화 산작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노래모음집에는 교원노조가, 민주, 참교육의 함성으로, 타는 특마를 등 담고 있다. 판매는 사회과학서점에서 2천원씩 하며 문의는 679-0181.

제 4회 추상제
본교 일어일문학과 학생회에서는 「제 4회 추상제」를 오는 29·30일 화요일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총학생회 문화대행사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일본 학생운동사례시나, 집체극, 사진전, 일어연상게임, 일어동화

구연대회, 집중도론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상조회 체육대회
본교내 기능부(사무직제외)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모임인 상조회 (93명)에서는 「상조회 체육대회」를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운동장에서 개최한다.

미술과 동 3전
본교 미술학과 3학년 학생들은 「동상전」이라는 작품 전시회를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화요일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MIS 학술제
89 제 1회 전국경영정보 학 학생연합회 학회회가 전국경영정보 학생연합회 (경기대·국민대등 12개대학) 주최로 오는 30일 오후 2시 국민대 101호 강당에서 「MIS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대회를 연다.

수중 탐사
수중탐사연구회에서는 「수중탐사」를 강릉 경포대에 서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4박 5일간 수중생태변화과정을 주제로 갖는다.

산악회 등반
동국산악회에서는 「정기주제 등반」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박 5일간 도봉산 선인봉에서 갖는다. 이번 등반은 경주캠프 산악부와 함께 하며 압력등반 훈련을 주무적으로 20여명이 참가한다.

동문동정
수중탐사연구회에서는 「수중탐사」를 강릉 경포대에 서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4박 5일간 수중생태변화과정을 주제로 갖는다.

지리산 등반
민중문화회 산악회에서는 오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리산 등반을 떠난다.

동약 기사석
반학자투세력을 뿌리뽑자
—부정비리의 진상규명 빨리 수행해야—
지난 21일의 「부정비리 진상규명 결의대회」에 참여한 학생의 한사람으로서 착각한 마음을 글감있게 이끌은

노동자계급의 침예한 무기

노문연 창립에 즈음하여

『문에는 노동자 계급의 사상을 광범한 노동자 대중속에 전파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이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의 전선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북부하여야 할것이며 이는 노동자 계급의 임직 독자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독자적인 노동자계급 문제조직의 건설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노동자 계급의 무기로서의 노문연이 이들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 사상은 전 노동자, 전 민중 속으로 퍼져나가 커다란 파도라 되어 독재와 독점자본의 아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것이다.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 창립개사서)

지난 9월 23일 「노동자 계급의 사상으로 투쟁한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인 문제조직」이라는 기치하에 전 민중문화운동연합과 전문화예술연구회가 통합되어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이하 노문연)이 새로이 창립되었다. 노문연이 바라보는 문예운동의 위상은 노동자 계급과 전 민중을 정치의식화시키는 무기, 즉 노동해방투쟁의 선전·선동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계급 문예운동은 오직 노동자계급 변혁투쟁의 토대위

체를 통해 문화싸움을 만들어 노동운동에 기여한다것이다. 이는 노동자 대중이 갖는 문화적 욕구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문화싸움을 형성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보급으로 노동자의 의식, 조직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상이 매개되지 않는 건강한 문화란 무엇이며 그러한 생활문화의 보급이 갖는 의미란 무엇인가 사상이 매개되지 않는 노동자 대중의 조직화가 변혁운동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이다. 노문연의 문예운동에 대한 견해속에서도 제시하고 있지만 계급적이지 않은 문화란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문화가 되

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의 사상 즉 과학적 세계관의 내용이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변혁운동에 대한 북부는 두 견해가 공히 지향하고 있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예는 문예운동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무엇을 문예운동의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노동자 계급의 변혁운동에 대한 북부는 그 철저성을 달리 할 것이다. 노동자 계급의 변혁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노동자 계급의 과학적 사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임무가 무엇인가 노동자계급이 지향해야 할 변혁의 비유과 전망이 무엇인지를 노동자 대중은 인식해야 한다. 또한 각기 노동자 계급의 문예운동도 노동자 대중에게 노동자 계급의 사상을 선전·선동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 계급의 변혁운동에 대한 가장 철저한 북부가 될 것이다.

이 희 진
〈문화평론가〉

끝은 소리 한마디가 자주동악을 건설합니다

동악기사는 전통악인이 공동체의 생활속에서 공감하는 바를 독자여러분이 직접 기가 되어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서관의 물건분실, 교내복지시설, 주차장의 마찰·의견대립등을 건의 또는 제안(2만동악인에게 돌려 주십시오. (원고지 2~3매기량) ※기타 문의는 동아신문 문화부로서 하시거나 전화로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文 化 部

"교과위 체계가 흔들린다"

선학과 강사초빙...교과위 무시한 처사로 반발 어용·무능·부패세력 일소에 역행

서울캠퍼스 학자투신자 등
입교과위추진위원회(이하=교과위)
는 지난22일 오후 5시 학
자투 사투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학기 사업 및 투쟁방
향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학기 교
과위사업의 진행상 중대한 도
점으로 평가될 불교대선학과
한대식 대우전임강사의 초빙
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오
고갔다.

즉, 한대식 대우전임강사의
교수채용에 있어 과주체 전
체의 공개적 투쟁에 반하여
은 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중앙교과위를 통해 보고
를 했어야 할데도 불구하고
김봉안(선학4) 선학과 교과
위원장은 직접 교무처장 및 총
장과의 만나 이론제를 단독 총
결하는, 기본적으로 교과위 존
재를 무시한 행동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과위는 선학
과 교과위장정체와 총장·교
무처장의 반학자투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묻기로 결정하고 이날 성명
서를 채택했다.

이런 선학과 교과위의 반
학자투적 행위는 2학기 학
원자투와 투쟁에 있어 교과
위가 차지하는 역할 및 본
적 상황구조에서 벗기기로
파악될수있다.

교과위가 갖는 역할로서는
△학교 총과 지난 22일
「동국 발전에 관한 합의
문」을 작성하며 학교·학생·
교수 주체가 사멸한 「신규교
수의 초빙은 공개 채용의
원칙 속에서 학과 구성원
모두의 동의와 엄격한
중요교과위에 추천하고 심의
를 거쳐 총장에 보고한다」
라는 약정 승계체제와 중
요교과위의 인권을 두루 거

침으로써 민주적이고 발전적
방법을 통한 교육의 질을 향
상시키는 제도의 틀이 바로
교과위라는 점·선학자투의
공로·평가되는 교과위는 기
본적으로 어용과 무능 세력
이 인맥·파벌을 이용하여 교
수가 되는 것을 철저히 막
고 진보적인 교수 영입및교
과과정을 생애하기 위한 제
도의 틀을 보장받은 대원회
임을 들수있다.

그러나 이번 선학과 사태
를 계기로 교과위의 2학기
활동내역과 자기총장 선출에
있어 파벌적 중앙교과위의
중대역할 상향평준화를 살펴
본 다음과 같다.

△2학기 학자투성격을 파
악할때, 단순한 총장선출 투
쟁 내지 공동대처의 진행
문제나 나타나는 단원지향적
인 부분이 아니라 교수 어
용무능 부패세력들의 원천
파괴투쟁의 기초에서 펼쳐
지는 총체적 투쟁이라는 점
△지급도 계속 지행되고있는
교수대의원의 대표 3인등
극소수 무능세력들의 교과위
와해음모(교과위에서마련한
연수기간 설정을 철저히시도)
로부터 대우선 임하는 점
△학원자투의 원성의 시점에서
동국 질곡의 벽을 깰수 있
는 89년을 정리해야 할 현시
점에서 어용·무능·부패세력
30~40명의 대거적인 전직
을 통한 재결성이 이번 교
과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과위의
2학기 투쟁방향을 사업내역
을 살펴보면, 이번 선학과
투쟁은 단순한 파벌의 교과
위원에 대한 파벌의 기복제
약을 이룩하지 못한 점 △중앙
교과위 중심으로 파벌사임을
진개하며 학과 교과위의 의
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 △선학과 사태를 해결하
지 못한 점 △「교과위 선출대
」를 과별로 조직, 위와 문제
점을 극복하고 교과위 전체
회의를 일주일에 한번씩 정
례화함으로써 대학의 수평
이동을 가능케 한다는 점 △
수평이동을 가능케 한다는 점
을 하반기 사업을 대비하며
내년도 사업(학외전문) 준비
를 위한 교과위 토론회의 장
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들이 거론된 주요내용이다.

교과위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발전지향점은 △선학과
교과위와 중앙 교과위의 원
칙한 대응적·상하층 의견수렴
이 이뤄지지 못한 점 △중앙
교과위 중심으로 파벌사임을
진개하며 학과 교과위의 의
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 △선학과 사태를 해결하
지 못한 점 △「교과위 선출대
」를 과별로 조직, 위와 문제
점을 극복하고 교과위 전체
회의를 일주일에 한번씩 정
례화함으로써 대학의 수평
이동을 가능케 한다는 점 △
수평이동을 가능케 한다는 점
을 하반기 사업을 대비하며
내년도 사업(학외전문) 준비
를 위한 교과위 토론회의 장
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들이 거론된 주요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그동안 방학
을 거처 보던 학생들에게
쉽게 와닿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투쟁의 기록제 역할을
할수있다는 점이다.
이날 결정된 교과위 투
쟁에서 나타났듯이 교과위는 학
자투의 완성을 위한 어용·
무능세력들의 제거작업에 2
학기 대부분을 집중할 것이라
는 추측이 대부분이다.
「토의할 것도 없는데 시
간을 끌것이니」라는 경
박골골의 평화모를 듣
고도 또한 학원자투의 서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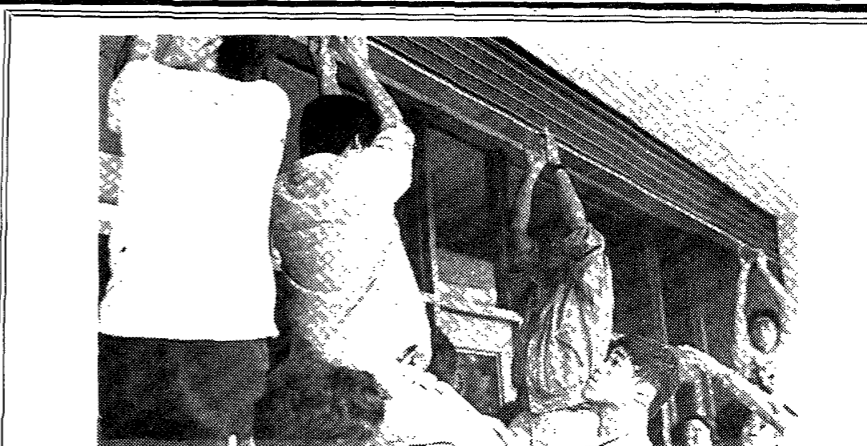
이번 구내은행개정은 후
생복지과 학생복지위원회의
노력의결과물로서, 그동안 은
행 이용하러던 학교밖까지
나가야했던 불편을 크게 덜게
되었다.

한편, 학교당국은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위해 교정
곳곳에 동전교환기도 곧 설
치할 예정이다.

학자투 위원장
이승민군 휴학
학자투 위원장 이승민(영
문4)군이 지난 18일 학생
과에 휴학원을 제출했다.

학생과 한 직원의 말에 따
르면 지난 8일 학과대표 이군이
찾아와 문제제기를 의논
했으며, 지난 18일 제출된 휴
학원에는 개인사정으로 휴학
한다고 적혀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학자투 사무실 집행
부의 한 학생은 이군이 이
번주내로 학교에 돌아와 자
신의 거취및 휴학결정에 관
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
했다.



『학자투세력은 쪽문으로 다니십시오!』 임시부정의총과
관련된 전·현직 보직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진상규명요구에 학
교측이 미온적 태도를 취하자 지난21일 오후 3시경 학생들이 부
정부패의 상징이 되어버린 본관 출입문의 셔터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있다. 침체된 등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부정비리의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할것이다. <글·사진=지정필기자>

대의원의장 선거 난항 경주, 인문·자연대 의장 공석

경주캠퍼스 대의원의장선거
가 지난 20일 오전11시부터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각대
별로 실시되었다.

2학기 학생회비 분배 4천5백만원 총학·단대연합순으로

총대의원회 예산분배소위에
서는 「89년도 2학기 학생회
비 분배안」을 지난 5일
의결했다.

실분배액은 총 4천1백만원
중 총학생회가 8백20만원(20
%) 단대연합 2천280만원(50
%) 야간강좌 5백12만5천원
(12.5%), 동원 3백48만5천
원(8.5%), 총대의원회 2백5
만원(5%), 총학생회 1백6
4만원(4%)등이다.

분배과정에서 단과대학 대
의원회는 단과대학 학생회비
5%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분
배하기로 했으며, 학자투(학
위포함) 등은 총학예산에서 할
당하기로 했다.

한편 2학기 학생회비 예
산분배액은 총 4천5백만원에
달하며, 이번 5일 실시 계
획이던 면접특강만 리포트
면접담당강사 초첨으로 갖는
다.

한편 尹錫安(회계학) 경영
대학원장과 金憲奎(교육학)
학생생활연구소장은 지난 18
일부터 서울지역 30개대기
체를 대상으로 본교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경주 상징탑 건립 오는28일 기공식

경주캠퍼스 상징탑건립추진
위원회는 상징탑건립장소결
정을 위한 회의를 지난19일
오후 4시 도서관 4열람실에서
개최하고, 오는28일 오후 1
시에 기공식을 갖기로했다.

이날 건립위원회 회의에서
는 장소외에도 좌대부분의
안상이 논의되어 많은 논란
끝에 이를 작가에게 일임키로
결정하고 본교 李勳元(미술
학) 교수에게 위임했다.

추교수는 『코끼리의 크기가
서울캠퍼스의 2배크기이기때
문인 20일에 있게된다.

취업대책 발간

학생처에서는 졸업생관련위
임대책자로(89년11호) 2천5
백부를 발간, 내달 초순경
발행 예정이다.

최성호군 합격 사범시험 2차에

본교 최
성호(법
학89학
군-사진
>)이 총
무처에서
지난 9
일 발표
한 제3회 사범 2차시험에 합
격했다.

이번 사범 2차시험에는 최
군을 비롯한 지난 1차합격
자 14명이 응시했다.

한편, 3차 면접시험은 10
월 12, 13일 양일간에 실시
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달
20일에 있게된다.

조흥은행개점식 동전교환기설치

「조흥은행 중로지점 동국
대학교 출장소」가 지난21일
문을 열었다.



△교수 직권이 지난2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교내
일원에서 실시되고있다.

제천산 고추직판 추계총합 30일 실시

서울캠퍼스 추계 농촌봉사
활동이 오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나흘간 총학생회관
배움터, 봉안면, 덕산면 일대
에서 총학연대사업부 농민분과
주최로 펼쳐진다.

이렇게 보면 그동안 방학
을 거처 보던 학생들에게
쉽게 와닿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투쟁의 기록제 역할을
할수있다는 점이다.

이날 결정된 교과위 투
쟁에서 나타났듯이 교과위는 학
자투의 완성을 위한 어용·
무능세력들의 제거작업에 2
학기 대부분을 집중할 것이라
는 추측이 대부분이다.

「토의할 것도 없는데 시
간을 끌것이니」라는 경
박골골의 평화모를 듣
고도 또한 학원자투의 서광

야간강좌 「전일제」 80% 찬성 「전학과 주·야간 통합 실시」 주장

「야간강좌 정기학생총회」가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 중
구관 앞에서 이부대학장 田海
鏞(영문학) 교수와 야간강좌
학생회장 이광호(회계3) 군
을 비롯 4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오는 90년도 신입생모집
회에서 전·일제 학생회, 영문
과 등 3개학과와 야간강좌
폐합이 확실히 된다면 이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논의
될 이날 총회에서 야간강좌
전·일제 학생회장을 김동원(통
산·3) 군은 기초발제를 통
해 「근래에 와서 야간강좌
개설 반대 취지와 어긋나
사립대 재정증원의 재원으로
야간강좌가 약이 되었고, 이
이로인해 주·야간 차별성과
대학내 공동체문화형성의 어
려움을 여러 문제점이 발생

했다」고 발표하고 「노동자계급
의 교육기회부여, 주·야간 차
별선택, 교과목의 확대등이
이루어질수있는 「전일제수업」
을 전제조건으로 야간강좌 전학
과의 주·야간통합을 실시해
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러 야간강좌 발전추진위
원회 위원장 박종환(야간강
제2) 문은 야간강좌 폐지
제에 대해 동국대내에 도서
관·관공실지와 휴식공간증설,
선학·복합대학등을 학교측에 요
구했다.

한편 정기총회후 전일제수
업에 대한 찬·반투표가 21·
22일 양일간 실시되었는데 전
체 투표인원 6백51명중 찬
성 5백21명, 반대 1백22명,
무효 8명등 야간강좌 학생
80% 이상이 전일제수업에 대해
찬성을 나타냈다.

「노동자계급
의 교육기회부여, 주·야간 차
별선택, 교과목의 확대등이
이루어질수있는 「전일제수업」
을 전제조건으로 야간강좌 전학
과의 주·야간통합을 실시해
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러 야간강좌 발전추진위
원회 위원장 박종환(야간강
제2) 문은 야간강좌 폐지
제에 대해 동국대내에 도서
관·관공실지와 휴식공간증설,
선학·복합대학등을 학교측에 요
구했다.

한편 정기총회후 전일제수
업에 대한 찬·반투표가 21·
22일 양일간 실시되었는데 전
체 투표인원 6백51명중 찬
성 5백21명, 반대 1백22명,
무효 8명등 야간강좌 학생
80% 이상이 전일제수업에 대해
찬성을 나타냈다.

잠에 빠진 명진관시계...마치 교수회를 보는 듯

올 맞을 수 있을것 같기도.
학원 自衛투쟁(?)
○임시부정비리에도 취
구멍을 찾지 않은 동학의
반학자투세력. 본판권을 받고
쪽문으로다니는 것에는 엄
청한 비리를 저지를 거를

들은 학자투를 학원지해
투쟁으로 보는 모양인데 같
아 쓸쓸하기만.
모급할 뿐실
○「모급함에 신문에
백일+X를 넣어주세요」
전교조신문 배부를위해 신

문위에 놓여있던 모급함이
씨인이 보는 앞에서 증발
해버려 보이는이로하여금
을 못다박게했다고...
사안인력, 동원등모야 참
교육운동에
해주려던 모
급함은 학생
회관에 있던
누군가가 집
어간것.
「토의할 것도 없는데 시
간을 끌것이니」라는 경
박골골의 평화모를 듣
고도 또한 학원자투의 서광

짧은 재입간을 빌미로
안락한(?)한학을 보려
려는 군산들에게 이르노니
그대들로 인해 은발골 역
사의 한페이지가 虛無失
(?)해지고 있습니다.

들은 학자투를 학원지해
투쟁으로 보는 모양인데 같
아 쓸쓸하기만.
모급할 뿐실
○「모급함에 신문에
백일+X를 넣어주세요」
전교조신문 배부를위해 신

제27회 「동대신문 학술상」 논문 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
해 제정, 매년 알찬 수확을 거둔은 本社 學術賞이 傳統과 權威의 연
륜을 쌓으며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
도 동국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모집분야
 - ▲人文科學賞: 본상 및 가작
 - ▲社會科學賞: 본상 및 가작
 - ▲自然科學賞: 본상 및 가작
- ◇응모분야
 - ▲원고매수 = 人文·社會·自然科學 3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로 지도교수의 추천 및 소속학과 학술논문이어야함
 - ▲응모자격 =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
 - ▲심사위원 = 本社에서 위촉하며 입상작발표와 함께 공고
 - ▲시 상 = 상장 및 상금(분야별 본상 20만원·가작 15만원)
 - ▲제출기간 =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본사에서 접수
 - ▲입상작발표 = 10월 18일 本紙 紙上

전국 대학생 제4회 「동대문학상」 작품 모집

東國의 文學적 傳統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韓國文學을 主導해
갈 嶄新한 文才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本社
제정 「東大文學賞」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本「東大
文學賞」이 이땅의 精神文化를 주도해갈 가장 권위있는 大學文人의 등
용문으로 정착할것을 기대하며 문학에 뜻을 둔 知性人 여러분의 적
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모집분야
 - ▲詩... 5편 이상
 - ▲小說... 60枚 이상 (2백자 원고지)
 - ▲評論... 60枚 이상 (")
- ◇응모요령
 - ▲응모자격: 全國에 소재한 4년제대학 在學生
 - ▲제출기간: 1989년 9월 21일 ~ 28일까지
 - ▲시 상: 시 부 = 본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소설부 = 본상 20만원, 장려상 15만원
평론부 = 본상 20만원, 장려상 15만원
 - ▲심사위원: 本社에서 위촉하며 입상작발표와 함께 공고
 - ▲당선작발표: 1989년 10월 18일 자 본지 紙上
 - ▲작품제출처: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작품발표에 「東大文學賞」 응모필지라 朱書해 주십시오
※제출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